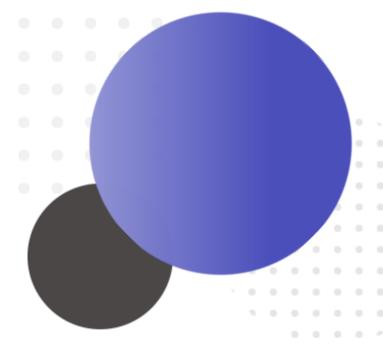
비타민 3주차 정규세션



오버피팅과

-

BITAmin 5조 최대상 조은정

CONTENTS -

01 오버피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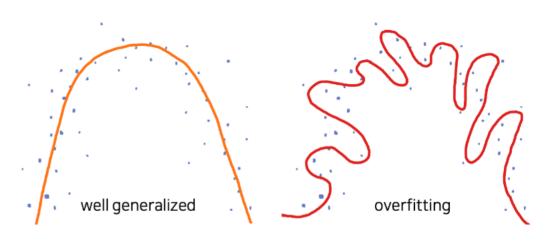
02 다양한 규제 기법

- 가중치 감쇠
- 드롭아웃
- 배치정규화
- 조기 종료

01 -오버피팅 Overfitting • 학습 오차가 일반화 오차에 비해서 현격하게 낮아지는 현상

-> 모델이 학습 데이터의 불필요한 편향이나 노이즈까지 학습함으로써 모델의 일반화 성능이 떨어지는 상황

따라서 오버피팅을 최소화 하는 것이 모델링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!



규제 Regularization

- 오버피팅을 늦추고 모델이 학습 데이터로부터 적절한 특징들을 학습하여 일반화 오차를 낮추는 기법
- 모델 복잡도를 줄이기 위해 제약을 두는 방법

- 02 다양한 규제 기법

다양한 규제 기법

규제 Regularization

데이터를 통한 규제 소실 함수를 통한 규제 기중치 감쇠

신경망 계층을 통한 규제

드롭아웃

배치정규화

계층정규회

학습/추론 방식을 통한 규제

학습 조기 종료

배강 & 앙상틀

가<mark>중치 감쇠</mark> Weight decay

- 학습 과정에서 큰 가중치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식이유: 오버피팅은 가중치 매개변수의 값이 커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
- 손실 함수를 수정하는 방법을 통해 적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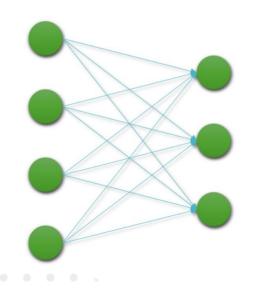
$$egin{aligned} ilde{\mathcal{L}}(heta) &= \mathcal{L}(heta) + lpha \|W\|_2^2 \ &= \mathcal{L}(heta) + lpha W^ op \cdot W, \ ext{where } heta &= \{W, b\}. \end{aligned}$$

- 신경망 학습 목적: 손실 함수 값 줄이기
- 가중치 제곱 노름(L2 norm)을 손실 함수에 더함
- -> 가중치 증가 억제 가능

가중치 감쇠

Weight decay

• 손실 함수를 수정하는 방법을 통해 적용



- 가중치 파라미터에서 W의 각 요소: 선형계층에서 입출력 노드 사이의 관계
- 요소 값의 크기가 클수록 강한 관계임을 의미

$$egin{aligned} ilde{\mathcal{L}}(heta) &= \mathcal{L}(heta) + lpha \|W\|_2^2 \ &= \mathcal{L}(heta) + lpha W^ op \cdot W, \ ext{where } heta &= \{W, b\}. \end{aligned}$$

- W에 L2 노름을 취해서 관계 약화
- -> 노드 사이의 관계의 강도 제한
- -> 각 계층의 출력 노드가 다수의 입력 노드로부터 과도하게 학습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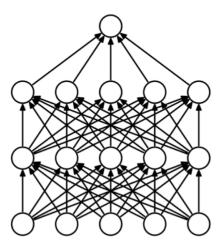
가<mark>중치 감쇠</mark> Weight decay

$$\tilde{\mathcal{L}}(\theta) = \underbrace{\mathcal{L}(\theta)}_{(1)} + \underbrace{\alpha \|W\|_2^2}_{(2)}$$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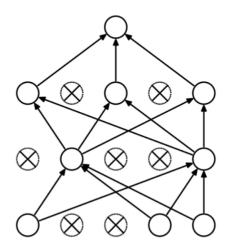
- (1)이 커지면 (2)가 작아지고 (2)가 커지면 (1)이 작아짐 -> (2)의 스케일을 설정하는 하이퍼 파라미터 α의 역할 중요
- 스케일 설정 값이 0에 가까워질수록 (1)을 최소화하기 쉽고, 설정 값이 커질수록 가중치 파라미터가 W(기존 손실 함수의 가중치)에 가까워지기 어려움
- -> 해당 하이퍼 파라미터에 따라 모델 성능 결정
- -> 학습을 방해하여 오버피팅 최소화

드롭아웃 Dropout

- 임의의 노드를 일정 확률로 드롭해서 학습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
- 훈련을 반복할 때마다 신경망의 뉴런 출력을 랜덤하게 0으로 만드는 작업
- 매훈련마다 조금씩 다른 뉴런 연결 방식(토폴로지)
- -> 신경망이 각 입력 샘플을 암기하려는 기회 감소-> 오버피팅 방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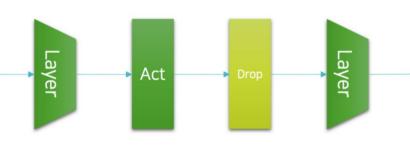
(a) Standard Neural Net



(b) After applying dropout.

드롭아웃 Dropout

• 구현 방식



- · 비선형 활성 함수와 선형 혹은 여러 계층의 컨볼루션 모듈 사이에 nn.Dropout 모듈을 넣어 구현
- 인자: 어떤 입력이 0이 될지에 대한 확률 p 지정 (p는 보통 0.1~0.5 사이에서 0.1 단위로 튜닝)
- 훈련할 때만 사용하고 평가와 예측 시에는 사용하지 않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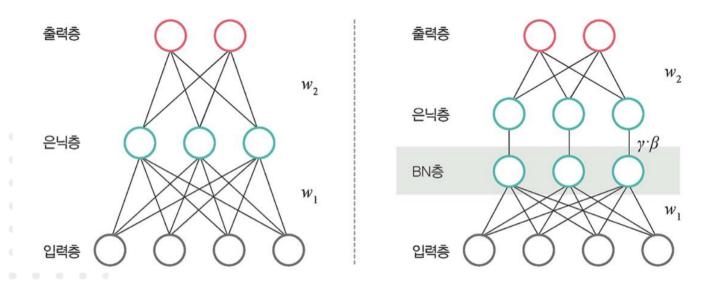
하겨

- 손실 값의 수렴 속도 저하 (훈련 시간 증가)
- 학습 오차 증가

배치정규화

Batch normalization

- 기존 규제 방식의 문제: 학습을 방해하는 형태로 작용하여 학습 및 수렴 속도 저하
- 배치정규화
- 학습 속도를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일반화 성능까지 개선할 수 있는 방법
-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규제 방법



배치정규화

Batch normalization

$$\operatorname{batch_norm}(x) = \gamma \frac{(x - \mu)}{\sqrt{\sigma^2 + \epsilon}} + \beta$$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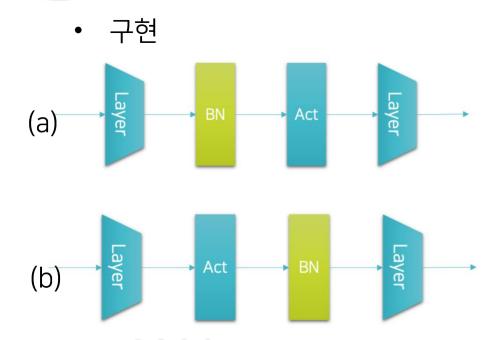
$$\mu = x \cdot \text{mean}(\text{dim} = 0)$$
 $\sigma = x \cdot \text{std}(\text{dim} = 0)$

where
$$x \in \mathbb{R}^{N \times n}$$
.

- 공변량 변화 문제 해결
- 공변량 변화: 네트워크의 각 층마다 활성화 함수가 적용되면서 입력값의 분포가 계속 바뀌는 현상
- 해결 방법: 분산된 분포를 정규분포로 만듦
- 미니배치를 가우시안 분포로 정규표준분포화
- -> 스케일 파라미터 γ 와 이동 파라미터 β 적용 (γ , β : 가중치 파라미터)

배치정규화

Batch normalization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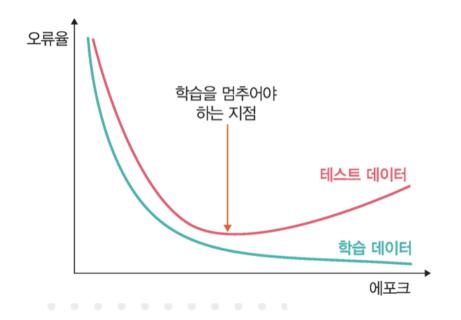


- 신경망 내부에 배치정규화 계층 삽입
- 주로 선형 계층과 활성 함수 사이에 삽입(a)
- 다만 드롭아웃의 삽입 위치와 동일하게 삽입하는 (b)의 방식도 가능
- 배치 크기가 작을 경우 정규화 값이 기존 값과 단점 다른 방향으로 훈련될 수 있음 (ex. 분산이 0이면 정규화 자체가 안 될 수 있음)
 - RNN의 경우 네트워크 계층별로 미니 정규화를 적용해야 함-> 모델이 더 복잡해지면서 비효율적일 수 있음

조기종료

Early stopping

- 뉴럴 네트워크가 오버피팅을 회피하는 규제 기법
- 매 에포크마다 검증 데이터에 대한 오차를 측정해서 모델의 종료 시점을 제어함



- 오버피팅 발생 전
- 학습에 대한 오차, 검증에 대한 오차 모두 감소
- 오버피팅 발생 후
- 훈련 데이터셋에 대한 오차: 감소
- 검증 데이터셋에 대한 오차: 증가
- -> 따라서 검증 데이터셋에 대한 오차가 증가하는 시점에서 학습을 멈추도록 조정

• • 한계

- 학습 종료 시점만 결정할 뿐 모델 성능을 보장하지 않음

#